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5권 제1호(통권 제97호, 2014 · 봄)

수형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관한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효과 및 교정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최경환** · 김태익*** · 허창덕****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교정상담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는 경북에 위치한 ○○교도소의 수형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인은 수형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로 설정하였다. 교류분석 프로그램은 총 8회기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1회기 당 3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는 설문지 분석을 통한 양적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의 혼합 설계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양적접근에서는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교류분석 프로그램 이전이후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비교하였다. 나아가 그 효과성을 더욱 깊이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총 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일인당 평균 20분의 시간이 할애되었다. 일부 대상자(3명)의 경우 프로그램 초기와 프로그램 후기로 나누어 두 번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결과 모두 평균값 차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도 수형자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진술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수형자들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효과적인 교정상담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 수형자, 교정교육, 교류분석 프로그램,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

* 본 연구는 최경환의 박사학위논문인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자기효능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 내용을 발췌,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자,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 공동저자, 한국과정사상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Ⅰ. 서론

뉴스나 인터넷 등 방송매체를 통해 강력 혹은 흉악범죄 등 끔찍한 범죄의 소식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비난하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흉악무도한 사이코 패스이며, 양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구제불능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혹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범죄의 원인은 단지 '부도덕한 개인'으로부터 비롯되며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접근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람들의 감정적 공감은 쉽게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교화와 이를 통한 범죄의 감소에는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과거의 구금주의 및 형벌주의적 접근이 재범률의 감소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 개인의 범죄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변인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며,[2]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거운 형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범죄자들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가정이나 역기능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부적응적 성격 패턴 및 역기능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반인과 수형자의 비교연구에서, 수형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 피해망상, 반사회성, 공격성, 상호작용에 대한 거부, 높은 충동수준과 낮은 감정 통제 등의 특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3] 그리고 이러한 내적 갈등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동기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범죄자들의 근본적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한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 내면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교정 심리치료의 역할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1) 배임호/박경일/이태언/신석환/전영록,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7, 22-26쪽.

2) 동일 문헌, 53-74쪽.

3) 김세일/이영순, 교도소 수형자와 일반인들 간의 성격특성 분석 -PAI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논단(7권 1호), 2008, 33-34쪽.

교류분석은 1950년대 에릭 번(Erik Berne)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개인의 자아 상태와 의사소통의 교류분석을 통해 개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심리치료법이다. 교류분석은 현재 각종 교육·기업·심리치료 현장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또한 긍정성의 함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반사회적 성인 및 비행 청소년의 교화, 개인의 트라우마 개선 등 교정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2.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현재 교정의 추세는 과거 '응보 및 처벌'에서 '교화 및 회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문제가 교정계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교정의 출발이자 핵심이 수형자의 변화이며 이는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교정 심리치료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

한국의 경우 대략 1980년대 무렵부터 교정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심리치료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비행이나 교정현장에 적용되던 초기에는 주로 행동치료[5] 및 인지행동치료[6]의 심리치료 기법이 수형자

4) Napper R., Positive Psychology and Transactional Analy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9(1), 2009, 61쪽.; Barrow G.. Wonderful World, Beautiful People; Reframing Transactional Analysis as Positive Psychology.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7(3), 2007, 206쪽.

5) 홍경자/노안녕,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4권 1호), 1983, 19쪽.

혹은 비행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술치료,[7] 음악치료,[8] 원예치료,[9] 심리극,[10] 영화치료,[11] 명상[12] 등 다양한 접근법이 교정현장에서 시도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범죄유형 및 형량, 범죄동기, 재범여부, 연령, 정신질환 여부 등 수형자들 각각이 지닌 배경과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다원화된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정심리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교류분석 프로그램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의사소통패턴과 자아상태, 이면의 각본을 분석하고, 개인의 역기능적인 행동패턴과 부정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미숙한 수형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교류분석

교류분석(Transactioanl Analysis, TA)은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번에 의해 창시된 성격이론이자 심리요법이다. 교류분석에서는 개인이 타인과 의사교류를 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성격 형성과 행동 패턴에 관한

6) 조성희/김보경/김종률,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9-11쪽.; 박태영,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수형자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3.

7) 박인숙,「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미술치료 효과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오민자, 「성폭력 수형자 미술치료 사례연구」, 교정담론(2권), 2008, 145쪽.

8) 구혜경, 「재소자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 연구」, 교정연구(55호), 2012, 7-8쪽.

9) 지성한, 「원예치료가 남성재소자들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인간·식물·환경학회지(13권 6호), 2010, 25쪽.; 지성한, 2012, 「원예치료가 재소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15권 6호). 441쪽.

10) 박희석, 「교정시설 재소자의 심리극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상담학연구(8권 1호). 2007, 27쪽.

11) 박여울/홍창희,「영화를 이용한 집단치료가 여성 재소자들의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7권 4호), 2011, 105쪽.

12) 전미애/김정모,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가 청소년 수형자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16권 1호), 2011, 63쪽.

이해를 제공한다. 주요 개념으로는 교류, 스트로크, 자아상태 모델, 라켓, 인생각본 등이 있으며, 위 주요개념과 관련된 '현대의 교류분석'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13)]

교류 및 스트로크(Transaction and Stroke) 교류란 개인과 타인 사이의 의사교류를 말한다. 스트로크란 교류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모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스트로크에는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으며, 우리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긍정적 스트로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부정적 스트로크를 전한다.

자아상태 모델(Ego-state model) 교류분석의 가장 기본 모델로 개인의 자아는 어버이(Parent)-어른(Adult)-어린이(Children) 자아로 존재한다. 어버이 자아는 부모 또는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부터 내면화된 자아로 명령적, 독선적, 비현실적인 성격을 가진다. 어른 자아는 합리적인 자아로 마치 성인과 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아이다. 어린이 자아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자아이다. 교류는 이 세 가지 자아 상태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역동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켓감정 및 게임(Rocket feeling and Game) 어린 시절 우리는 자신의 욕구 및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해 용납되는 감정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연스레 용인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한 자신의 감정은 감추게 되는데, 이 때 드러나는 감정을 라켓감정이라고 한다. 또한,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라켓감정으로만 교류를 하는 것을 게임이라고 한다.

인생 각본(Life script) 인간은 어린 시절 자기 인생의 대략적 스토리를 구축하며,

---

13) Ian S./Vann J.,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Lifespace Publishing, 1987, 제석봉/최외선/김갑숙/윤대영 공역, 현대의 교류분석, 학지사, 2010, 24-28쪽.

이는 대략 7~8세 사이에 완성된다. 중요한 점은 한 번 구축된 각본이 이후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판본으로서 기능하여 개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각본대로 살아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의 각본이 "지금-여기"에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역기능적일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각본을 분석하고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류분석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개인의 상호간 의사교류 방식의 분석, 억압된 감정의 교류인 라켓분석, 삶의 밑그림인 각본분석 등을 통해 현실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류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적 접근"으로 좁게는 자기 심리학으로부터 넓게는 행동・인지 치료적 접근까지를 총 망라하는 광범위한 심리치료 접근을 포괄한다.[14] 더군다나 교류분석의 주요개념인 자기긍정, 타인긍정 인생태도(I'm ok, You're ok), 자율성, 상호의존성 등의 개념은 긍정심리학적으로 재해석되어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긍정성 함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류분석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교화,[15] 직무만족도 향상,[16] 스트레스 대처,[17] 부모 교육,[18] 사회성 계발,[19]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및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교정관련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선행연구들은 사회 부적

14) Napper R., Positive Psychology and Transactional Analy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9(1), 2009, 72쪽.

15) 이태영/이동훈/정윤서/이영희, 「절도행동청소년을 위한 교류분석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한국재활심리학회(19권 3호), 2012, 507쪽.

16) 김종호/현미숙/황승국, 「패턴분석을 이용한 교류분석이론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17권 4호), 2007, 526쪽.

17) Gerard A. F./James P. D./Zevon A. M., The Structure of Work-Related Stress and Coping Among Oncology Nurses in High Stress Medical Settings: A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3), 1998, 227쪽.

18) 박미현/이영호/김윤주,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조기 유학생 동반 어머니들의 부모 효능감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41권 2호), 2013, 87쪽.; 장문규/이완정,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79집), 2013, 111-112쪽.; 차명진/김소연, 2013. 「교류분석이론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18권 2호), 2013, 73쪽.

19) 이정미/심미경, 「통합적 접근의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놀이치료연구(19권 1호), 2013, 115쪽.

응, 청소년 문제 행동, 개인의 내재된 트라우마 극복 등에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예컨대, Cellini & Young(1976)은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교류분석에 기반한 독서치료를 실시해 효과성을 보고했으며,[20] Jesness(1975)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동수정 치료와 교류분석 기법을 비교 시행한 뒤 교류분석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21] Carter & Dalla(2006)는 사례 연구를 통해 한 여성 성노동자의 트라우마의 해결에 교류분석적 접근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였다.[22] 많은 수형자들이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류분석이 가진 심리치료 효과는 수형자의 삶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특히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여러 상담현장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 및 문제 행동 치료 분야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류태보(1996),[23] 김현주 & 김정희(1998),[24] 이정미 & 전영자(2012)[25] 등은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성격 및 행동, 심리적 안녕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고했다. 그 외에도 최은봉(2008)[26]은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교정 및 교화에 대한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따라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 Cellini, H. R./Young, O. F, Bibliotherapy in Institution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6(4), 1976, 407-409쪽.

21) Jesness C. F.,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Behavior Modification and Transactional Anaysis Programs for Delinqu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6), 1975, 758쪽.

22) Carter D. J./Dalla R. L., Transactional Analysis Case Report: Street-Level Prostituted Women as Mental Health Care Client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3, 114.

23) 류태보, 「교류분석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성격기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2권 3호), 1996, 304-308쪽.

24) 김현주/김정희, 「교류분석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자율성과 생활 자세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1권 1호), 1998, 142쪽.

25) 이정미/전영자, 「교류분석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인생태도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16권 3호), 2012, 37-40쪽.

26) 최은봉, 「교류분석(TA)으로 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실행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5권 1호), 2008, 129-130쪽.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심리학자 반두라(Albert Bandura)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로 정의된다.[27] 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비해서 더욱 목표 지향적이고 과업 초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향한 인간의 동기와 그 성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이다.[28]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행동의 시작,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투입 정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행동의 지속을 결정짓는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대처 및 적응,[29] 자기통제력 향상,[30] 정서 조절,[31] 진로결정[32] 등 다양한 변인에 관여한다. 이는 주관적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범죄행위와 연관이 있으며 그 패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33] 자기통제가 수형자의 준법태도, 전과력, 적응정도 등에

27)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1.10., 학지사. [네이버 지식백과] 자기효능감 [自己效能感, self-efficacy]

28)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77, 191쪽.

29) Pulakos E. D./Schmitt N./Dorsey, D. W./Arad, S./Hedge, J. W./Borman, W.C, Predicting Adaptive Performance: Further Tests of a Model of Adaptability, Human Performance 15(4), 2002, 299쪽.; 김영경,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24권 1호), 2013, 127쪽.

30) Bonar E. E/Rosenberg H./Hoffmann E./Kraus S. W./Kryszak E./Young M. K./ Ashrafioun L./Pavlick M./Bannon E. E., Measuring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to Use Drinking Self-Control Strategies, Psychology of Addictive Problems 25(1), 2011, 155쪽.; 최은영/정성희, 「자기효능증진 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자의 흡연량, 호기일산화탄소, 소변 내 코티닌 수치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14권 2호), 2012, 103쪽.

31) Gunzenhauser C./Heikamp, T./Gerbino, M./Alessandri, G./Von Suchodoletz A./Di Giunta L./Caprara, G. V./Trommsdorff, G., Self-Efficacy in Regulat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Validation Study i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9(3), 2012, 197쪽.

32) 신정옥,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19권 2호), 2011, 109쪽.; 정진희/원미순/이수진,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권 7호), 2013, 228쪽.

33) Landau, S. F, Crime Patterns and Their Relation to Subjective Social Stress and Support

영향을 미친다는 점[34] 등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수형자들의 적응 및 심리적 건강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대인관계 스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타인과의 관계의 장에 편입된다. 부모형제 및 가까운 주변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관계의 범위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점점 넓어져 사회의 다양한 만남을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관계적 경험을 가졌느냐하는 문제는 개인의 성격형성,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심리적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며, 때때로 그 여파는 평생 동안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많은 경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은 경험 또는 크게 좌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기반을 가지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가졌던 경우가 많다.[35] 이는 개인의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 실패 경험에 대한 취약성 증가, 혹은 반사회적 성향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는 일생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 미숙한 대인관계 스킬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잘못 형성된 역기능적인 사고 패턴은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수형자들에게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법을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Indicators: The Role of Gende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1), 1997, 29-30쪽.

34) 민정희/강혜자,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적응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 교정연구(45호), 2009, 271쪽.

35)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제3판」, 박영사, 2013, 82-91쪽.; 동일 문헌, 209-212쪽.; 서혜석/양경화, 「성폭력 범죄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에 미치는 효과」, 교정연구(46호), 2010, 149쪽.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 교도소 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20명의 수형자들 중 프로그램을 완료한 이는 18명이었으며, 이 중 신뢰도, 타당도가 미흡한 데이터를 제외한 최종 15명에 대한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최종 대상자 15명 중 9명을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이 중 심층면접 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한 명(W.S)과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 두 명(김해, 바다2)을 제외한 6명의 심층면접 내용이 질적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부 대상자(태백, 바다, 인내)의 경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초기(2회기)와 후기(7회기)에 걸쳐 두 번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번호	별명	나이	범죄내역	형기	학력
1	부산 갈매기	39	금품절취 및 강취	징역7년	중졸
2	**신앙**	44	금품강취 및 살해	무기징역	중졸
3	**차장수**	37	살해(자연사로 위장)	무기징역	고졸
4	**우주의 기운**	51	금품절취미수 및 상해	징역6년8월	고졸
5	파라	39	사기	징역3년	고졸
6	light & dark	26	강제성추행	징역1년6월	고졸
7	**태백**	28	폭행	징역3년	중졸
8	**인내**	27	살인	징역12년	고졸
9	**바다**	55	아동 성추행, 폭행	징역5년6월	고졸
10	**희망**	26	협박 및 금품강취	징역4년	고졸
11	**바다2**	35	폭력	징역1년6월	고졸
12	K.S.B	55	횡령	징역8월	초졸
13	자유	40	금품강취 및 살해	무기징역	고졸
14	**J.S.M**	48	성폭행	징역5년6월	중졸
15	W.S	31	타인 주거침입 및 금품 절취	징역1년4월	중졸

※ K.S.B, J.S.M, W.S 이 3인의 경우 별칭에 본명을 사용하여 영문 이니셜로 표기함.
※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원의 별명은 진하게 표시함.

2. 연구절차

연구대상자들은 프로그램 공고 이후 대상자들을 자원 받아 모집되었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통해 참여를 확정지었다. 프로그램은 2012년 5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주 1회 회기 당 3시간으로 총 8회기, 24시간 분량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다년간의 교정상담 경력이 있으며, 교류분석 심리치료 전문가인 주 저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아래 <표 2>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교류분석 8회기 프로그램의 주제 및 주요 내용이다.

〈표 2〉 교류분석 회기 내용

회기	주제	주요내용
제1회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모습의 나 이해하기	오리엔테이션 세 자아에 대한 개념 이해 (부모자아, 성인자아, 어린이자아)
제2회	구조분석	자아상태 및 라켓 이해 자아그램 분석
제3회	교류분석	의사교류분석 및 의사전달과정에서의 적절한 표현 및 반응 훈련
제4회	구조분석	OK-gram 분석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키기
제5회	생활각본분석(1)	생활각본분석을 통한 자신의 행동 동기파악
제6회	생활각본분석(2)	스트로크(인정자극) 이해 긍정적 스트로크 주고받기
제7회	생활각본분석(3)	라켓의 확인 긍정적 · 기능적 행동 및 사고패턴 고취
제8회	생활각본분석(4)	재경험, 소감나누기 및 마무리

3. 연구도구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척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

등이 개발한 검사지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총 23문항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36] 문항에 대한 응답은 O, X 응답의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의 Cronbach's α값은 모두 0.7 이상이었다.

대인관계 척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Schlin & Guerney(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이형득과 문선모(1979; 한현배, 1997에서 재인용)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37] 총 25개 문항 중 보기가 중복되는 2문항을 제외한 23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척도는 리커트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값은 모두 0.9이상이었다.

질적분석 연구대상자의 내적 변화 및 심경을 조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시 사용된 질문은 양적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척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 4개,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 8개 및 "프로그램의 참여 기대 및 효과성"에 대한 질문 2개, 총 14개로 구성하였다. 다만 교도소의 사정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간 이외의 시간을 할당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조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도소 보안상의 이유로 녹취록을 활용한 녹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내용을 직접 기입한 후 컴퓨터로 녹취를 푸는 방식으로 심층면접 내용이 확보되었다.

---

36) Schlein A./Guerney, B. G.,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1971.; 홍혜영,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7) Sherer M./Maddux J. E./Mercadante B./Prentice-Dunn S./Jacobs B./Rogers R. 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1982, 663-671.; 한현배, 「인지-경험적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인간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4. 자료분석

프로그램 이후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분석을 통한 양적연구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의 혼합연구 설계(Mixed method)가 사용되었다. 양적분석의 경우 사전-사후조사 설계(pretest-posttest design)를 바탕으로 한 수형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실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심층적 변화와 관련된 면접대상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양적 분석

가. 자기효능감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집단별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N=15)

		min	Max	Mean	SD
자기 효능감	사전조사	7.00	23.00	17.00	4.74
	사후조사	13.00	23.00	20.20	2.81

조사집단의 자기효능감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조사의 경우 최소값(min) 7.00, 평균값(M)이 17.00, 표준편차(SD)가 4.74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최소값(min) 13.00, 평균값(M) 20.20, 표준편차(SD)가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자기효능감의 변화수준을 t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자기효능감의 변화

(N=15)

변인	사전 (M±SD)	사후 (M±SD)	사전-사후 (M±SD)	t	P
자기효능감	17.00±4.74	20.20±2.81	-3.20±3.10	-4.00	.00

t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에 있어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의 평균값의 차이가 3.20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수형자들의 대인관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 대인관계

연구 참여자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집단별 사전-사후 대인관계

(N=15)

		min	Max	Mean	SD
자기 효능감	사전조사	2.43	4.17	3.33	.49
	사후조사	2.91	5.00	3.69	.51

조사집단의 대인관계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조사의 경우 최소값(min) 2.43, 평균값(M)이 3.33, 표준편차(SD)가 0.49 수준이었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최소값(min) 2.91, 평균값(M) 3.69, 표준편차(SD)가 0.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변화수준을 t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대인관계의 변화

(N=15)

변인	사전 (M±SD)	사후 (M±SD)	사전-사후 (M±SD)	t	P
대인관계	3.33±0.49	3.69±0.51	-0.37±0.32	-4.36	.00

t 검증 결과 대인관계에 있어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의 평균값의 차이가 3.20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수형자들의 대인관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심층면접 분석

가. 자기효능감

심층면접 초반 여러 참여자들이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한 명의 참여자(W.S)는 면접 도중 공격성을 드러냈으며, 두 명의 참여자(김해, 바다2)는 면접에는 응하긴 했으나 단답형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등 방어적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속이야기를 드러내기를 거부했다. 몇몇 수형자들은 장기 수형자인 자신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였으며, 일례로 한 참여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 제가 이 프로그램이 좋고 유익한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저희에게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희망, 남, 26세)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의 태도는 호의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심층면접 과정에서 몇몇 수형자들로부터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관련된 여러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이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무언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반성 및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1) 목표설정 및 실천

아래는 기존부터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한 사례들이다.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에 한 번 도전을 해볼까 해요. 우선 요즘은 금융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을 좀 구해서 금융기사를 비롯한 금융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희망, 남, 26세)

미래에는 요식업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뭐 주로 관련 서적을 읽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관련 서적도 틈틈이 보고 있고요. 요식업 관련은... 뭐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못하고 있고요, 다만 출소하고 난 뒤에는 요식업 관련해서 대학에 진학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인내, 남, 27세)

자기계발에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의 분위기, 막연한 미래 그리고 자유가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등 교류분석 프로그램은 몇몇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천의 의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2) 자기 성찰의 계기 및 긍정성 함양

몇몇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제껏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거쳤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좀 불행한 일이 많았지만은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실히 살려고 노력하고 바라보는 스타일이 되었으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J.S.M, 48세, 남)

전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인정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화도 자주 내기도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이게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한 번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형성되면 그게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그러다보면 그게 더 크게 일그러지는 듯합니다.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관계 등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 44세, 남)

변화를 느끼는 게 제일 큰 점은... 사고방식이 변한 듯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여기가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단점, 장점을 다 보고 그러는데 제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단점을 좀 크게 보고, 장점은 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 그런데 요즘은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이 보이고 또, 단점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는 하죠. 그런데 예전만큼 자주 이야기도 안할뿐더러 이야기를 해도 예전에는 "아, 거기. 그러지 좀 마요 좀."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같이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희망, 26세, 남)

그랬지. 옛날 같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평소에 애들 생활하는 걸 봐도 그래. 예전에는 이렇게 생활하다보면 애들이 못하는 부분만 자꾸 눈에 밟혔거든? 근데 요즘은 잘하는 부분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애. (바다, 55세, 남)

수형자들은 생애초기 및 성장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이는 교도소라는 폐쇄된 환경과 맞물려 교도소 내 생활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어렵게 함은 물론 주변의 동료 수형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긍정성 함양은 단기적으로는 수형자들의 시설 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 및 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나. 대인관계

1) 대인관계지식 함양

심층면접에 참여한 몇몇 수형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 혹은 가족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면접 대상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관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또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성향이 강하고, 상대방은 이런 성향이 강한데, 그럼 이런

성향이 강한 상대에게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수용 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제 삶에 있어서도 저를 파악하고 뒤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요, 제 애들과 와이프에 대해서도 '어떤 성향이고 이건 어떻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가족에게 편지를 썼는데, 좀 이런 점도 이제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차장수, 37세, 남)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성격적으로 과거에는 관계 시 좀 두루뭉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니까 뭐 A, C, P 각각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상황에 맞게 쓰는 법,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알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아.. 저 사람은 FC가 많은 것 같으니 나는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다.' 등등 말이죠. (J.S.M, 48세, 남)

위 사례는 의사교류패턴 분석, 자아상태 분석 등 교류분석에 대한 교육이 수형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교류분석의 지식습득을 통한 교육적 기능을 보여준다. 성공적인 교화는 단순히 개인의 성찰이나 정서적 순화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며, 따라서 교류분석의 교육적 기능은 이 프로그램이 수형자들의 교정에 공헌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라 하겠다.

2)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 증가

몇몇 수형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증가했다는 보고를 했다.

요즘 일단 오해가 생기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오해는 단둘이 푸는 편이에요. 여기 수감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 따로 이야기해요. 충분히 얘기한 뒤 정 서로 납득이 안 되면 그냥 합의점을 찾아서 끝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진행하죠. … 과거에는 생각하기 전에 주먹이 먼저 나갔었는데, 이제는 화가 나거나 하는 일이 있어도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는 등 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희망, 26세, 남)

나도 예전엔 그랬어. 강압적이고 좀 억압적이고 명령적이었지. 옛날에는 시켰거든. “돼, 안 돼.” 아니면 “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한 번 해볼까?” 이렇게 변화한 거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바다, 55세, 남)

위 두 참여자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다. 참여자 ‘희망’ 가 이야기했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주먹이 먼저 나가던 과거”와는 달리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는” 지금의 태도는 타인의 생각과 입장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라 볼 수 있다. 참여자 ‘바다’씨 역시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과거에는 명령형의 어투를 썼다면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들은 이후 권유형의 말투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인정하는 이러한 태도로의 변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자기표현

교류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인내’라는 가명을 사용한 참여자는 지난 수십 년 간 하지 못했던 자기표현을 가족들에게 하기도 했다.

가족접견 이전

제 아버지께서는 좀 그러십니더. 말씀도 잘 안하시고 무뚝뚝하고 그냥 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있잖아예. 그런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다정다감하시고예. 그런데 이게 제 기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게 제가 아버지를 꼭 닮아서 막 속에 있는 거 표현도 잘 못하고 하거든예. 근데 또 동생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참 부모님께도 살갑게 잘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더. 그래서 저 스스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예. 작년에 제가 제 가족들이랑 가족접견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좀 이렇게 살갑게 하고 안했지예. 나중에 집에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서 동생들이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우셨다고 말하는 거에요. 제가 막 계속 무뚝뚝하게 그렇게 구니까 그렇지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마음이 되게 짠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살갑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예. 이번에 6월 22일에 가족 접견이 한 번 더 있단 말입니더. 그 때 가서는 부모님이랑 가족들에게 좀 잘해볼라고 생각하고 있십니더.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또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둔 것도 있고예.. 그걸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니깐 좋은 것 같습니더. (인내, 27세, 남).

가족접견 이후

아. 네. 접견은 좋았습니더. 처음에는 부모님과 이렇게 뭐 다른 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다 똑같았습니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뒤에서 안아드렸습니더. 문 열고 나갈라고 하실 때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폭풍처럼 쏟으면서 우시대예. 원래는 어머니가 집에 가시면 울고 그러시지 제 앞에서는 그냥 웃고 이렇게 계시거든예. 제가 또 그거 압니더. 참고 계시는 거. 그리고 그 날 그 동안 못 다했던 얘기도 많이 했습니더. “내가 그동안 이랬는데 이랬다.” 라든지 “그 때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했다.” 라든지 그런 거 말입니더. 제가 성격이 좀 그렇거든예. 원하는 거 잘 말 못하고 그러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렇거든예.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많이 변하대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지예. 이게 남들한테는 쉬운 일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예. 그래도 했습니더. 해봤습니더. 그러니 아... 이게 다르대예. 또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게 좋은 도움이 됐습니더. 제가 행동으로 이걸(제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꺼? (인내, 27세, 남)

자기표현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표현을 통해서 타인과의 갈등과 오해의 여지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인내’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표현에 대한 동기를 얻었고,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접견 시 가족(특히 어머니)에게 지난 십 수 년 간 하지 못했던 자기표현을 해냈다.

요약하면,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실험집단 수형자들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 실천의 의지를 불어넣었고,

자기성찰과 반성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성의 고취에 효과적이었다. 대인관계적 측면에서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지식 함양,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 증가, 자기표현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위 프로그램의 심층면접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류분석 프로그램은 교정교육 현장에서 수형자의 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 프로그램의 교정교육 기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분석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사후 응답 비교 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심층면접의 결과 역시 이 프로그램이 일부 수형자들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천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고,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며, 긍정성의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는 면접자들의 보고가 있었다. 이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교류분석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의 대인관계스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스킬의 척도의 사전사후 응답 역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심층면접의 결과 역시 이 프로그램이 일부 수형자들의 대인관계의 지식함양에 도움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 증가했다는 면접자들의 보고가 있었다. 나아가 어느 한 사례는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표현을 촉발하게 된 주요 동기원으로서 기능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스킬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수형자들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스킬

의 효과성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수형자들의 교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교육이라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교정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북에 위치한 특정 교도소의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가 총 18명으로 사례의 숫자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다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집단상담의 적정인원은 8~10명으로 여겨지며 많아도 20명 이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의 효과를 위해 사례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참여자의 인구학적 변인과 연구대상 기관을 다원화하는 등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의 조사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했기 때문에 효과성을 엄밀하게 검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양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O, X의 2점 척도로 따라서 통계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수준 높은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상담 접근법들이 최근 교정현장에 적용되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수형자들의 수요, 정신병력, 특성 등이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적합한 인원을 적절한 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교류분석 프로그램 효과의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수형자들이 어떠한 동기와 과정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 어떤 이면의 스토리가 존

재하는지, 현재의 자신과 수감생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등 수형자의 과거사와 현재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수형자들의 욕구파악 및 더 나은 교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연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구혜경, 재소자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 연구, 교정연구 제55호, 2012, 7-28.

김세일/이영순, 교도소 수형자와 일반인들 간의 성격특성 분석 -PAI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논단 제7권 1호, 2008, 21-37.

김영경,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1호, 2013, 127-156.

김종호/현미숙/황승국, 패턴분석을 이용한 교류분석이론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제17권 4호, 2007, 526-533.

김현주/김정희, 교류분석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자율성과 생활 자세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1권 1호, 1998, 133-146.

류태보, 교류분석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성격기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2권 3호, 1996, 292-315.

문채련/이현주, 미술치료와 교류분석, 양서원, 2012.

민정희/강혜자,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적응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 교정연구 제45호, 2009, 253-277.

박미현/이영호/김윤주,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조기 유학생 동반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1권 2호, 2013, 87-115.

배임호/박경일/이태언/신석환/전영록,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7.

박여울/홍창희, 영화를 이용한 집단치료가 여성 재소자들의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제7권 4호, 2011, 105-124.

박인숙,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미술치료 효과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박태영,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수형자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2003.

박희석, 교정시설 재소자의 심리극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상담학연구 제8

권 1호, 2007, 27-45.

서혜석/양경화, 성폭력 범죄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에 미치는 효과, 교정연구 46호, 2010, 147-172.

신정옥,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제19권 2호, 2011, 109-141.

오민자, 성폭력 수형자 미술치료 사례연구, 교정담론 제2권, 2008, 145-169.

이정미/심미경, 통합적 접근의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놀이치료연구 제19권 1호, 2013, 115-132.

이정미/전영자, 교류분석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인생태도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3호, 2012, 21-44.

이태영/이동훈/정윤서/이영희, 절도행동청소년을 위한 교류분석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한국재활심리학회 제19권 3호, 2012, 507-529.

장문규/이완정,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9권, 2013, 111-132.

전미애/김정모,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가 청소년 수형자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1호, 2011, 63-78.

정진희/원미순/이수진,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7호, 2013, 228-237.

조성희/김보경/김종률,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지성한, 원예치료가 남성재소자들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 환경학회지 제13권 6호, 2010, 25-32.

지성한, 원예치료가 재소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 학회지 제15권 6호, 2012, 441-447.

차명진/김소연, 교류분석이론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2호, 2013, 73-98.

최은영/정성희, 자기효능증진 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자의 흡연량, 호기일산화탄소,

소변 내 코티닌 수치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제14권 2호, 2012, 103-111.

최은봉, 교류분석(TA)으로 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실행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제5권 1호, 2008, 115-133.

해외문헌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77, 191-215.

Barrow G.. Wonderful World, Beautiful People: Reframing Transactional Analysis as Positive Psychology.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7(3), 2007, 206-209.

Bonar E. E/Rosenberg H./Hoffmann E./Kraus S. W./Kryszak E./Young M. K./ Ashrafioun L./Pavlick M./Bannon E. E., Measuring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to Use Drinking Self-Control Strategies, Psychology of Addictive Problems 25(1), 2011, 155-161.

Carter D. J./Dalla R. L., Transactional Analysis Case Report: Street-Level Prostituted Women as Mental Health Care Client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3, 95-119.

Cellini, H. R./Young, O. F. Bibliotherapy in Institution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6(4), 1976, 407-409.

Gerard A. F./James P. D./Zevon A. M., The Structure of Work-Related Stress and Coping Among Oncology Nurses in High Stress Medical Settings: A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3), 1998, 227-242.

Gunzenhauser C./Heikamp, T./Gerbino, M./Alessandri, G./Von Suchodoletz A./Di Giunta L./Caprara, G. V./Trommsdorff, G., Self-Efficacy in Regulat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Validation Study i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9(3), 2012, 197-204.

Ian S./Vann J.,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Lifepace Publishing, 1987, 제석봉/최외선/김갑숙/윤대영 공역, 현대의 교류분석, 학지사, 2010.

Jesness C. F.,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Behavior Modification and Transactional Analysis Programs for Delinqu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6), 1975, 758-779.

Landau, S. F., Crime Patterns and Their Relation to Subjective Social Stress and Support Indicators: The Role of Gende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1), 1997, 29-56.

Napper R., Positive Psychology and Transactional Analy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9(1), 2009, 61-74.

Pulakos E. D./Schmitt N./Dorsey D. W./Arad S./Hedge J. W./Borman W. C., Predicting Adaptive Performance: Furthcer Tests of a Model of Adaptability, Human Performance 15(4), 2002, 299-323.

Schlein A./Guerney, B. G.,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1971.

Sherer M./Maddux J. E./Mercadante B./Prentice-Dunn S./Jacobs B./Rogers R. 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1982, 663-671.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a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Program among Prisoners'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kills

Choi, Kyenghwan* · Kim, Taeik** · Huh, Changdeo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a transactional analysis (TA) counseling program among prisoners. Fifteen prisoners were participated in the TA program with eight sessions(each one for 3 hours). Mixed method design that combin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as used for this study: The pretest-posttest design was utilized to explore the changes of prisoners'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kills. Also, nine participants randomly selected were interviewed for twenty minutes each to deeply investigate their inner dynamics and personal chang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tatistical difference found in both variables (at level .001) through comparison of results from the pre and post intervention indicates that the TA program was efficient in both variables. Also, the prisoners reported several positive changes, including becoming more optimistic towards the self and others and understanding more of others' point of view. Moreover, an interviewee stated the program encouraged him to express himself to his family which he had never done in his entire life.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adopt a TA program for correctional education in South Korea. Given what the findings show, a TA approach could be a prospective and effective intervention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education.

* Lead Author, Department of Sociology, Yeungnam Univeristy, Ph.D.
** Co-author, Researcher, Korean Process Philosophy Research Association.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Sociology, Yeung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ey words: Prisoners, Education for correction,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Program, Self-efficacy, Interpersonal skills

투고일 : 2월 18일 / 심사(수정)일 : 3월 21일 / 게재확정일 : 3월 21일